

<병원협약 원장스님 인사말씀 요지>

우리는 우리사회에서 그 어떤 차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그것이 소통과 화합의 정신입니다.

스님은 물론 신부님, 목사님, 교무님은 그 믿음과 종교와 관계없이 모두 우리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. 빛과 소금이자, 등불이며 목탁입니다. 이것이 바로 불교정신입니다.

우리사회의 종교지도자들이 불교병원에서 모두 똑같이 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동국대 병원관계자와 학교, 법인에 감사드립니다.

이 제도가 시행되면, 의료비 감면뿐만 아니라 진료와 치료를 받을때에도 스님들과 같이 똑같이 존경하고 예우해 주기를 바랍니다. (끝)